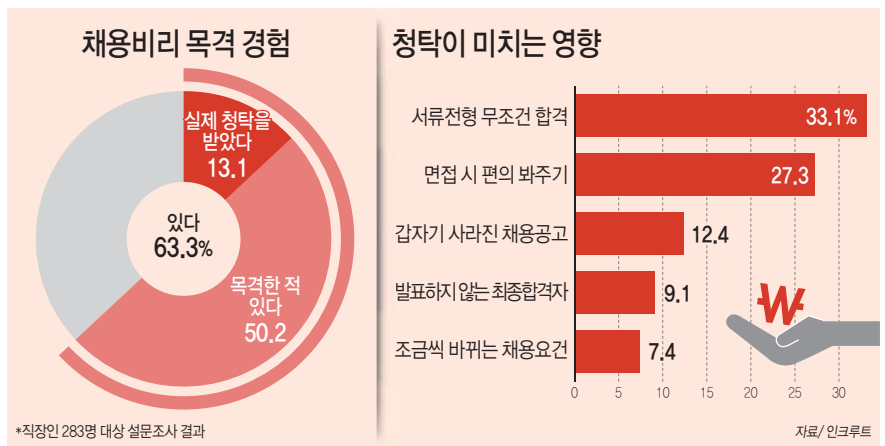
면접 전 이름 알려주고 시험문제 유출까지

직장인 절반 "채용비리 목격"

인크루트 직장인 대상 설문

40% "청탁, 무조건적인 지시"

대가로는 업무상 편의·금전 순



공공기관과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직장인 중 절반이 채용비리를 목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인사청탁 특혜채용 등을 목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3.1%는 '실제로 청탁을 받아 보았다'고 답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채용비리를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인 지시'가 39.7%로 가장 많았고, '청탁대가 제시'(25.2%), '회유, 협박'(18.5%) 이 각각 2, 3위에 올라 청탁과정의 상당 부분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다. 뒤이어 '금전, 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등의 답변이 나와, 청탁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기타 답변을 통해 인사청탁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 사례로는 '부탁으로 시작된 지시', '공개채용을 가장한 찍기 채용', '다른 그룹사 직원 아들 채용', '면접전 대상자의 이름 알려주기', '시험문제 유출', '지인추천제도' 등 다양한 형태가 나왔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채용비리 소식이 들려올 때 마다 구직자들이 갖는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기업성격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범위 내 ±7.26%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설 연휴, 서울 주차할 곳 없다면 초중고 학교에 무료 주차하세요

서울시교육청 406곳 나흘간 개방

설 연휴인 오는 15일~18일까지 나흘간 서울시내 학교 406곳의 운동장이나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민과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전역의 공·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 주차 시설로 개방하는데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민 또는 귀성객은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의 주차 개방 여부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차 문의는 해당 학교로 하면 된다.

서울시 소재 학교는 모두 1296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명절연휴 기간 중에도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차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어디로 유학 갈까?'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계속된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에서 유학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에스티, R&D 강자로 부상… '글로벌헬스케어 플레이어'

국내 제약기업 중 신약 보유 1위

작년 3분기까지 R&D에 606억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전문의약품 사업회사 동아ST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R&D) 역량과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제약회사로 평가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국산 신약 29개 중 4개를 개발해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동아ST는 2018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개발 첫 소식은 제약 선진국인 미국에서 알렸다. 동아ST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영국 제약바이오기업 아스트라제네카와 면역항암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ST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구중인 3가지 면역항암제 타깃에 대한 선도물질 및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물질탐색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모든 지적 재산과 특허는 공동 소유한다.

이어 동아ST는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와 당뇨병성신경병증치료제 천연물 의약품 'DA-9801'과 퇴행성신경질환치료제 'DA-9803'에 대해서 각각 라이선스 아웃 및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동아에스티 국산 신약 개발 현황〉

구분	등록연도	제품명	적응증
국산 신약 10호	2005년	자이데나	발기부전 치료제
국산 신약 24호	2015년	시벡스트로 정	항생제
국산 신약 25호	2015년	시벡스트로 주	항생제
국산 신약 26호	2015년	슈가논	당뇨병 치료제

동아ST 본사▶

DA-9801 라이선스 아웃 계약으로 동아ST는 계약금 200만달러(약 22억원)와 뉴로보 지분 5%를 수령하게 된다. 이후 임상 단계별 성공에 따른 마일스톤(임상 개발 단계별 기술료)으로 최대 1억7800만달러(약 1942억원), 상업화 이후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된다. 또한 DA-9803 양도 계약에 따라 양도금 500만달러(약 54억원)를 받을 예정이다. 총 계약규모는 1억8500만달러(약 2018억원)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DA-3880은 아라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다. 만성신부전 환자 및 항암 화학요법 환자들의 빈혈치료제로 쓰인다. 동아ST는 유럽 임상1상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임상1상 결과에서 아라네스프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입증해 성공적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2016년 동아에스티 R&D비용은 2015년 596억 원과 비교해 21.8% 늘어난 726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매출대비 13%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에만 606억원을 R&D에 투자해 연구개발비율이 14.8%까지 올랐다.

지난해 동아ST는 단기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R&D관련 조직 및 의사 결정 체계를 재편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저소득가구에 설 위문품·교복비 등 64억 지원

서울시 연휴시작전 계좌로 입금

서울시가 저소득가구의 명절 위문품비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6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설 명절 위문품비로 46억50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로 1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15만1416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약 89억8000만원과 중·고교 교복비 15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설 명절위문품비 46억5000만원은 가구당 3만원 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15만5000세대를 돕는 데 쓰인다.

위문품비는 지급기준일인 지난 1일부터 설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된다. 설 연휴 시작 전 세대주에 계좌입금된다.

위문품비 지원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됐으나, 설 명절 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 에 추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6일 저소득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8800명 에게 교복비(동복) 2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교복 지원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복 지원비는 10만원이다.

교복비 지원금액은 서울시교육청 교복구입비 기준 공동구매 상한가가 기준이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고 학업능력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한다.

/이범종 기자 joker@

농식품부 설 전후 전국 소독·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인 이달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청소와 소독은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귀성객과 여행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정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게시하고 국제 공항만에는 AI·구제역 발생국가 및 해외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해수부 '45兆 관상어 시장'… 관련 산업 육성

〈세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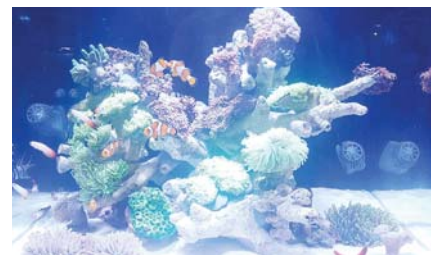
IoT 등 적용한 사육·관리용품 개발

정부가 사물인터넷(IoT)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관상어용품 개발 지원에 나섰다. 4000억원 규모의 관상어 산업을 육성을 위해 사육용품과 관리용품 부문의 업체 두 곳을 선정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 관상어 시장은 약 45조원 규모로 관상어는 강아지·고양이와 함께 3대 애완동물로 사랑받고 있다. 관상어 및 관상어 용품 관련 시장도 매년 7~8%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초 '관상어 사육용품'과 '관상어 관리용품' 2개 부문에 대해 각각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육용품 부문 선정 과제는 관상어 수조에 설치하는 기포발생기를 첨단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널리 사용돼 온 기포발생기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는 스마트 기포발생기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IoT 기술을 활용해 외출시에도 기포 발생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탑재할 계획이다.


관상어사진. /해양수산부

관리용품 부문에서는 관상어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다 풍부하게 함유하고, 소실률을 줄인 기능성 사료가 선정됐다.

기존에 관상어 사료에 첨가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어분(물고기를 원료로 하는 분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는 사료는 단백질 등 영양 함량이 더 우수하면서도 단가는 낮은 곤충 애벌레를 원료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세종=최신웅 기자